

'녹두서점의 오월' VR 웹툰으로 만나다

공감미디어, 3D 제작...입체감·생동감 부여
김상윤·정현애 부부, 김상집 집필 책 원작
17일 'VR/AR 콘텐츠지원사업 전시'서 시연



'녹두서점'이 다시 사람들 사이로 들어온 건 지난 2016년 열린 광주비엔날레 전시에서였다. 스페인 작가 도라 가르시아의 '녹두서점-산자와 죽은 자, 우리 모두를 위한'을 통해였다. 마침 '녹두서점' 기사를 취재중이어서 주인공 김상윤·정현애 부부와 함께 전시 현장을 찾았다. 서점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붉은 전봉준 액자, 태극기가 덮인 관, 약 4000권의 책이 꽂힌 책꽂이 등이 인상적이었다.

츠 제작지원 거점 센터 운영사업'에 선정돼 제작된 '녹두서점의 오월'은 광주 향정의 생생한 기록을 담은 울림 있는 이야기를 웹툰과 VR을 결합, 융합콘텐츠로 구현한 작품으로 VR 기기를 장착하고 생생한 느낌으로 감상할 수 있다.

모두 20분 분량인 웹툰은 세 사람의 기억과 시선으로 각각 한 편씩 만들어졌다. 특히 이번 콘텐츠는 작품 속 모든 배경을 360° 환경으로 제작하는 등 생동감과 공간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모바일로 스크롤을 울리며 작품을 감상하는 웹툰의 특성상 단순히 평면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해 VR 작품을 만들 경우 한계가 있다. 제작팀은 VR을 체험하는 관람자가 마치 현장 속에 들어와 있는 것같은 생생함을 전달하기 위해 배경 자체를 모두 3D로 제작하고 인물을 엮는 방식을 통해 입체감과 생동감을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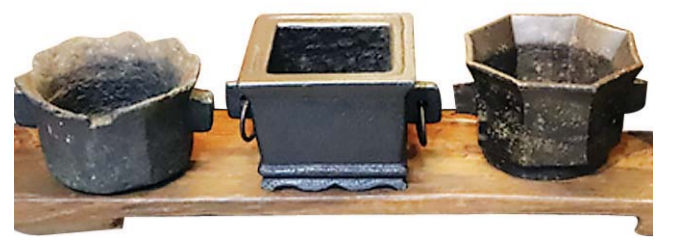
이번엔 '녹두서점 이야기'가 VR 웹툰으로 제작돼 5월 광주를 기억하게 한다. (주)공감미디어가 제작한 VR 웹툰 '녹두서점의 오월'은 책 '녹두서점의 오월-80년 광주, 향정의 기억'(한겨레 출판)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1977년 문을 연 후 1981년까지 운영된 15평의 조그마한 책방, 녹두서점은 광주 사회운동의 거점이자, 사회 변혁을 꿈꿨던 이들의 아지트였다. 특히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한복판에서 오월을 지켜본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다. 웹툰의 원작은 김상윤 부부, 김상윤의 동생인 김상집까지 녹두서점의 운영에 관여해온 세 사람의 시선으로 '80년 5월'을 들여다본 책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진행한 '2019 광주VR/AR 콘텐

기'는 기존의 오월 관련 콘텐츠 중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세 사람의 다양한 시선으로 생생한 기억을 더듬어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매력적'이라며 '영화 '택시 운전사'가 서울에 사는 운전사의 시선으로 오월 광주를 바라본 것처럼 오월을 다양한 인물들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어 의미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17일 오후 3시 광주 CGT센터 스마트 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 'VR/AR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전시'서 선보인다. 한편 이날 전시에서는 미술전시의 온라인화를 꾀한 'VR미술 전시관 어플(팀 미음), 광주 풀리 중 구시청 사거리'에 설치된 '열린 공간' 작품을 통해 1970년대 구시청사 내부와 주위 골목 등 시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인공지능 랜드마크 풀리 AR'((주)파르온), 광주푸른길 구간의 명소를 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광주 푸른길 AR투어 어플리케이션(브레인아이(주)) 등 모두 8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웹툰,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인 (주)공감미디어는 지역 스토리 발굴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재훈 대표는 '녹두서점 이야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물관의 겨울:화로 이야기' 전

14일~2월8일 비움박물관...표인주 교수 강의도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에 맞춰 다양한 기획전을 열고 있는 비움박물관(광주시 동구 제봉로 143-1)이 겨울 특별전에서 '화로'를 소개한다.

14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열리는 '박물관의 겨울:화로 이야기'전은 가난했던 시절 길고 긴 추운 겨울밤 서민들과 함께하며 따뜻함을 전했던 다양한 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획전이다.

화로의 살기움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는 무쇠화로, 철화로, 놋쇠화로, 양반화로, 굽화로 등 약 100여점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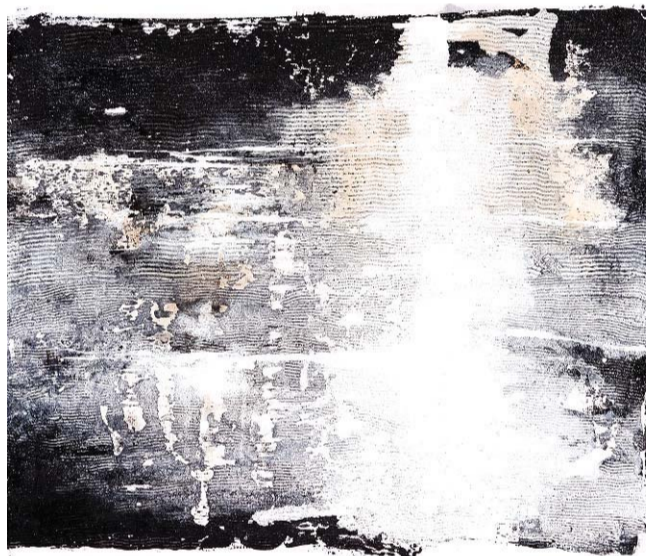
이영화 박물관장은 "새끼 꼬는 마당쇠 손이 시려 울고 싶을 때 고향처럼 따뜻한 무쇠화로, 가난한 아내가 일 나간 남편 기다리며 단장찌개 올려놓던 철화로, 어머니처럼 포근하고 너그러운 놋쇠화로, 아버지가 사랑방에서 쓰시던 양반화로, 할매가 불씨 묻어 다독이시던 굽화로를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개막날인 14일 오후 2시에는 주홍 작가의 드로잉 퍼포먼스가 열리며 3시에는 표인주 전남대 국문학 교수가 '문화적 다양성과 남도문화'를 주제로 강연한다. 1~3층에서는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민속품을 만날 수 있으며 기획전은 4층에서 열린다. 관람시간 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검은 그림'을 너머 원초적 물음에 대한 해답

김유섭 개인전, 14일까지 예술공간 집



'modern time II'

김유섭 작가를 이야기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게 '검은 그림'이다. 회화의 본질에 전착한 작품들은 온통 검은빛이 화면을 장악하며 강렬한 이미지를 던지고 관객들을 빨려들게 한다.

하는 도구가 된 종이와 검은 안료는 서로 얽히고 설킴을 반복하며 예술이란 의미의 원초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회화의 근원적 표현을 탐구해 온 김유섭(조선대 미술대학 교수) 작가 개인전이 오는 14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열린다. 지난 2014년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후 5년만에 마련한 자리로 전시작 25점 모두 올해 작업한 신작이다.

조선대에서 수학한 김 작가는 독일 베를린 미술대학에서 판화 및 드로잉을 공부하고 베를린 국립예술종합대학교 조형예술 및 예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베를린 국립예술종합대학교 조형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검은 그림'들로 대변되는 그의 추상회화는 예술의 큰 틀 안에서 수없이 쏟아지는 이슈와 개념, 주류 미술의 흐름들 안에서 줄곧 고민하고 검증하며 추구해왔던 작업들이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번 전시 타이틀은 'fundamental', '근본적인', '핵심적인'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그의 작품세계를 함축해 보여준다. 김 작가는 이에 대해 "검은 그림 시리즈가 회화본질에 대한 성찰과 의미, 그리고 회화표현에 대한 다른 가능성들을 제기하는 시점이었다면, 'fundamental'은 모호하고 끝을 알 수 없는 형태가 만들어내는 영역과 그 안을 채우는 이야기를 날 것같은 생생함으로 담아낸 시리즈"라고 말한다.

이번 전시작에는 작가에게 비춰진 사회의 단편적 풍경들, 불안한 사회의 모습, 자연의 신비로운 기운 등 무한한 초월적 감정이 그대로 담겼다.

또 구상 혹은 추상이라 명명할 수 없는 근원적 형상으로서의 표상들과 작가의 몸과 마음에서 비롯된 흔적, 이를 표현

인문학으로 듣는 클래식

피아니스트 허효정 공연, 18일 금호아트홀



클래식 음악은 언제부터 '진지한 음악'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됐을까? 클래식 음악의 기반이 된 인문학적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음악작품과 함께 선보이는 무대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피아니스트 허효정의 인문학 리사이틀: 송고의 파노라마: 클래식 음악은 어떻게 '송고'해졌는가?'가 1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공연은 한 시대의 인문학적 담론이 클래식 음악의 어법과 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며 롱기누스, 버크, 칸토로 이어지는 송고 담론의 역사와 그 이후 이어지는 관념론자들의 논의를 다룬다. 무대는 '클래식 음악과 근대철학의 송고담론', '버크의 송고이론, 그리고 클래식 음악의 어법', '또 하나의 송고, 후밀리스 에트 수블리미스', '칸토의 송고이론, 그리고 클래식 음악의 정체성' 등 4개의 토크와 연주로 구성된다.

관련 음악작품으로 리스트의 '단테 소나타', 이신우의 '코랄 판타지 5번-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슈만의 '유머레스트'를 연주한다.

허 씨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와 인문대학 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서양음악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뉴욕 카네기홀, 비엔나 무직베라인 홀을 비롯한 주요 무대에서 연주해왔고 폴란드의 독스 레이블로 작곡가 이신우의 코랄판타지 1, 2, 3번을 녹음해 피아노 독주 앨범을 발매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

차가운 무쇠에서 따뜻함

무쇠 차도구 장인 정해주 순회전, 13일까지 갤러리D



'화로'

무쇠 차도구 장인인 정해주 작가가 6번째 개인전이 13일까지 광주 갤러리 D(동구 중앙로 소재)에서 열린다. 서울 경인미술관과 대구대백프라자갤러리에 이은 순회전이다.

목공예가로 출발한 정 작가는 우연히 고객에게 선물 받은 하동 차를 접하며 차의 세계에 입문했고 자연스레 차 도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무쇠로 다구를 만들어왔다.

무쇠로 만든 솥과 탕관은 열전도 속도가 느리지만 내용물이 쉽게 식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예로부터 최고의 차 도구로 인정받았지만 코팅된 무쇠 탕관은 코팅이 벗겨지면서 녹물과 쇠냄새가 나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정 작가는 5년간 연구 끝에 무쇠에 무코팅 처리 특수가공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무쇠 차 뒤음술, 탕관, 탕술, 풍로 등을 제작했고 '차문화명인(추철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 작가는 고조선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도 세트를 재현했고 이동식 무쇠 차 뒤음술, 자동굽는 솥 등을 한국 최초로 개발했다. 그가 개발한 차 뒤음술은 오설록 티하우스 등 150여 곳에서 사용 중이다. 정 작가는 1982년 석·목공예계에 입문했으며, 1990년 자신의 아호를 딴 동원공방을 시작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포워드]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용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는**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송년행사'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